

데스크 시각

해외 자원개발의 딜레마



홍 행 기 경제부장

산업혁명을 전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를 쌓아 올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철과 석유 등 자원 개발에 성공한 기업가나 자본가들이었다. 강철 제국을 건설한 앤드루 카네기, 석유 왕국을 쌓아 올린 존 데이비스 록펠러 등이 그들이다. 물론, 무모하게 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업가도 부지기수였다. 자원 개발이나 산업기술이 뒤떨어졌던 당시엔 훗날 막대한 부의 원천이 될 자원을 미처 알아보지 못해 실패를 자초하거나, 실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자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의 벨저 가문(家門)이 저지른 실수다. 식민 지배가 일상화되었던 1570년대 중반,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부자였던 벨저 가문은 합스부르크 왕가로부

터 당시 독일 식민지였던 베네수엘라를 선물로 받았다. 물론 거저는 아니었고, 벨저 가문에게서 빌렸던 엄청난 돈을 갚을 길이 없어진 합스부르크 왕가가 ‘올머 겨자 먹기’ 식으로 빚 대신 내어 준 것이었다.

행운·실패 엇갈리는 자원개발

유럽 절반 크기의 땅을 보유하게 된 벨저 가문은 식민지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대규모 직원을 파견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발견한 것은 늪과 열대우림뿐이었다. 벨저의 직원들이 정착한 마라카이보 호수 주변은 무더웠으며 열병마저 창궐했다. 직원들은 특히, 어디로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신발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끈적이는 검은 덩어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지치고 실망한 벨저 가문은 18년 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던 직원들을 모두 귀환시켰고, 거대하고 야심에 찬 투자는 실패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몇백 년만 더 버텼더라면 벨저 가문의 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것이었다. 마라카이보 호수 주변은 ‘땅에서 나는 검은 황금’ 즉 석유 매장량이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우연한 결정이 대성공으로 변한 사례

도 적지 않다. 지난 1848년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마이어 구겐하임은 레인지 광택제와 커피 추출액 판매로 가족기업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1881년에는 광산업에 진출, 대기업에 합류했다. 특히 그가 투자한 최초의 납 광산이 얼마 뒤 은 광산으로 밝혀지면서, 구겐하임 가문은 20세기 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 기업 가운데 한 곳으로 발돋움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현대사회에서 산업 재료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주요 자원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석유를 비롯해 값비싸게 거래되는 각종 자원들을 거의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당위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신중한 접근 선행해야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성과 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추진해 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35조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앞으로 추가로 46조6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자원 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까지 말했다.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국력(國力)과 국부(國富)는 석유나 철·가스 등 주요 천연자원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자원은 지구상 특정 장소에서만 생산되는 데다, 각 시대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의 종류와 과학 및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중요도와 값어치가 현저히 달라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사례로 알 수 있듯,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행운과 실패가 엇갈리는 일종의 ‘도박’과 같은 성격

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감사원 지적처럼, 우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현재까지의 실패나 다행들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원 빈국(資源貧國)인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 자원 개발과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자원 개발이 ‘또다시 묻지 마 투자’가 되지 않으려면, 더욱 신중한 접근 그리고 철저한 관련 시스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redplane@kwangju.co.kr

社說

‘문화의 보고’ 양림동에 미술관까지 생기면

“양림동은 저에게 많은 예술적 영감을 준 곳이에요. 이 미술관은 제가 양림동에 드리는 일종의 헌사(獻辭)입니다.” 서양화가 한희원(60) 씨가 마침내 그의 오랜 꿈인 작은 미술관을 양림동에 마련했다. 어린 시절 예술적 자양분을 얻었던 양림동에 빛을 갈는 마음으로 ‘한희원 미술관’을 건립했다는 것이다. 가장우 가족(민속자료 1호)과 최승효 고택(민속자료 2호) 사이에 자리한 미술관은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했지만 지붕만 살리고 나머지 공간은 완전히 뜯어고쳤으며 오는 28일 문을 연다. 문이 손이 많이 가는 한옥 미술관을 택한 이유는 화가 배동신과 이강하, 시인 김현승과 작곡가 정윤성 등 많은 양림동 출신 예술인의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서다. 이들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생가나 기념관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양림동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

(寶庫)이지만 그 의미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한해 평균 20만 명이 다녀가는 대구 근대골목보다 100년 전의 유적(선교사 사택과 교회 등)이 많은 곳이 바로 양림동이다. 하지만 대구 근대골목이 ‘대구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데 반해 양림동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광주시와 남구청이 근대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명목으로 수백 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주차장과 인공시설물 설치 등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한희원 미술관이 문을 열게 되면 이는 단순한 미술관 하나의 투자가 아닌, 양림동의 정신과 가치를 지닌 사랑방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가까운 입지조건은 양림동과 도심을 이어 주는 가교 역할도 기대하게 만든다. 한희원 미술관이 양림동을 넘어 광주의 문화지형을 풍요롭게 하는 구심체가 되기를 바란다.

현대차 그룹의 ‘통 큰’ 투자를 기대한다

현대차 그룹이 지원하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27일 출범 6개월을 맞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출범 당시 정몽구 회장이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월 자동차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 수소연료 전지차 연관 산업 육성,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제시 등의 사업 추진을 골자로 ‘야심차게’ 닳을 올렸다. 개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 정부 차원의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가시화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또 열악한 자동차 산업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그랜드 플랜’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마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광주시와 ‘수소 융합 스테이션 구축 및 수소연료전지 버스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더 이상의 진전된 소식이 없다. 그나마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벤처 및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운영 시스템 지원, 그리고 광주 대인시장 내 시범 점포 2곳 개소가 전부다. 겨우 체면치레 수준인데, 출범 당시 개소 효과에 대한 비판적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 해 씁쓸하다. 현대차 그룹은 하우텔리 ‘통 큰 투자’에 나서기를 바란다.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과 기술선점

은펜클럽



서 미 정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 행정을 맨눈으로 보면서 의정 활동을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며 부족했던 점을 채우고 나아갈 길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오직 시민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도 얼마나 효율적인 활동을 했고, 또 의미 있는 존재였는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더군요. 그렇지만 매순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왔던 기억

조선 시의원의 자기반성과 희망

들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433000여원이 넘는 광주시 예산과 결산의 검토, 상임위의 현장방문과 강원도·충청도·서울 등지의 견학,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 등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타인의 평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제 자신의 몸을 곧게 세워 일을 진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몸을 곧게 세우려 하는 이유는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시민에 대한 의무가 가장 크지만, 7대 의회 구성의 앞뒤로 펼쳐졌던 정치사회적 일들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

다. 기억의 편린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2013년 말 한국 사회에서 술하게 물었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원 4213명의 직위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음독자살하는 사골 촌로 등,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했던 우리 사회가 한 대학생의 대자보를 보며 불같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로 295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가족에게 돌아가고 아직도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안녕하시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염장을 지르는 일이 될까봐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

다. 16명의 사망자를 냈던 판교 환풍구 사고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언급을 하 지 않더라도 22명의 희생자가 나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펜션 화재 사고 등 한승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

다. 의회에 들어오기 직전과 직후에 물려 있었던 대형화재들은 의정활동의 중심을 안전으로 맞춰놓았습니다. 사후약방문 같은 느낌도 들지만 다시는 이런 어이 없는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에 제 몸을 곧게 세우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기 고



이 상 태 녹색소비자연대 광주공동대표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대두되었던 ‘창조경제’가 최근 들어 자리 잡기에 성공한 듯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 동력은 자동차, 조선, 플랜트, 중등 건설, 반도체, 휴대전화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전 분야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국가 동력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창조경제, 즉 창의성과 융합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피터 틸(Peter Thiel)은 저서 ‘Zero to One’에서 비슷한 제품으로 경쟁을 하는 1에서 n으로 갈 것이 아니라, 혁신적 제품으로 0에서 1로의 수직적 진보를 주장하였다. 창조경제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와 K-푸드의 새바람

‘아이디어를 활용한 돈벌이’가 바로 그 길이 아닌가 싶다. 이제 융합을 통한 창의성은 협업과 기술 결합이 요구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헤쳐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라는 피터 틸의 말을,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관심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래는 지금과 다를 것이지만 미래의 뿌리는 현재의 세살일 것이라는 그의 주장도 결국은 현실 소재의 융합을 통한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조경제’ 또한 정치 선전 도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직 찾지 못한 길을 찾아 시대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지혜의 결집체가 되어야 한다. 가시적 경제 실적이라 할 창조적 작품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풀어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류의 열풍을 탄 K-pop, 수소 자동차, 로봇 산업, 우주 개척 등 문화에서 산업 공학까지 다각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색이 이어 왔다.

하지만 아직은 창조경제 수준에 도달하기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이런 현실에서 문득 돌아보게 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음식 문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각종 나뭇을 버무려 ‘비빔밥’이라는 창조적 음식을 만들어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어령 전 장관이 21세기 한국인의 키워드로 제시한 ‘디지털(Digilog, Digital+Analog)’의 원천도 비빔밥이었다. 낱 것도 익힌 것도 아닌 그 중간항에서 자연과 문명을 서로 조화하는 ‘맛의 교향곡’인 비빔밥이야말로 시대적 화두인 창조경제의 융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곡물과 육류 중심의 음식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람의 3/7가 육량 중 하나인 먹는 재미에 새로운 발상을 더하여 창조경제의 동력을 찾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미국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세 여성이 귀뚜라미로 만든 비스킷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서구에서 가장 주된 음식 재료인 밀가루에는 쫄깃한 식감을 주는 글루텐(Gluten)이 함

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알레르기나 장 이상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글루텐이 들어 있지 않은 Gluten-free 제품의 시장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른바 식스 푸드(Six Foods)가 글루텐 프리(Gluten-free)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다리 넷인 소나 돼지를 재료로 한 음식이 아니라 다리 여섯 개인 곤충을 음식 재료로 한다고 해서 식스 푸드인데, 우리 입장에서선 생소해 보이지만 사실 동남아 등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음식 재료 중의 하나가 곤충이다. 이미 아몬드로 치즈를 만들어 콜레스테롤이 없는 치즈로 대체하고, 식물성 이용한 계란 만들기 등 채식주의와 관련한 대체 식품의 연구도 활발하다고 한다. 이런 때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세계화하려는 전략, 내실 있는 한식의 세계화와 더불어 미지의 영역인 곤충을 식재료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의미 있는 창조경제의 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다양한 양념의 혼합, 융합에 발효의 미학을 더한 한식에 곤충이 추가된다면, 비빔밥·갈비를 뛰어 넘어 새로운 K-푸드 한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無 等 鼓

스포츠 스타들의 성공 배경에는 아버지의 헌신이 드물지 않다. 선동열의 부친은 허약한 체질의 아들을 위해 출다 하는 보약이란 보약은 다 구해 먹였고 박지성의 아버지는 고기를 싹껏 먹이기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정육점을 차렸다.

아버지들의 헌신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골프계다. 골프 선수들은 1년 내내 장거리를 이동하며 3~4일씩 대회를 차려야 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 역할을 아버

가꺼이 발상을 차려 주고 있다. 얼마 전 광주U대회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여자골프 2관왕에 오른 이정은의 성공 뒤에도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다. 덤프트럭 기사였던 이정호 씨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장애인용 차를 직접 운전하며 딸의 모든 대회를 따라다닌다고 있다. 이 씨는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까 봐 골프장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워 둔 채 딸이 경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골프 대디

이번에는 157번의 도전 끝에 LPGA 첫 정상에 오른 최윤정의 아버지 최지연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최 씨는 딸이 우승하기까지 8년간 묵묵히 딸의 캐디백을 메며 딸의 우승을 도왔다. 최윤정은 “아빠가 캐디를 하기 때문에 우승을 못 한다고 주위에서 수군할 때 가장 힘들었는데 이번에 아빠가 코치 캐디라는 것을 우승으로 보여줘 행복하다”고 말했다. LPGA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 여자골프계에서 자고 있던 또 다른 신데렐라가 탄생하고 있다. 신데렐라 탄생 못 지않게 골프 대디의 헌신적인 스토리도 감동을 안겨 준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96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치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디지털실 2200-536 |
| (대표 FAX 222-4918) | 채 육 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55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